

스리랑카 원조동향

I. 일본

- 일본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재국 동북부 지역 신규 난민(newly displaced people) 구제를 위하여 3,175톤 상당의 쌀을 지원키로 했다.

- 총 3,175톤의 쌀(총 180백만루피/약 1.7백만 불 규모로 추정) 중 1차분 422톤이 콜롬보항에 도착하여 4.27 기증식을 개최하였으며, 잔여분 3,175톤은 '07.5월중 콜롬보항 도착 예정이며, 배분작업은 WFP(World Food Programme)에서 담당하게 된다.

- 내전으로 인한 동북부 지역 난민구제 및 생계 복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일본은 지난 2006.12월 UNHCR을 통해 1만 여명의 난민에 대한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.(침

구용 매트 1만장, 개인용 수통 1만개, 천막 4천장 등)

II. 호주

- 호주는 DAP(Direct Aid Programme : 소규모 자금을 대사관 주관으로 수원 기관에 직접 지원)의 일환으로 암파라, 캔디 등 5개 지방지역에 4만불을 지원했다.

- 개발에서 소외된 지방 오지의 생활수준 개선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금번 자금은 암파라의 화장실 및 우물시설 지원, 캔디의 장애인을 위한 인공 수족 지원, 아누라다푸라의 여성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한 우물시설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.

Ⅲ. SARRC 정상회담 개요

- 일 자 : 2007. 4. 3 ~ 4
- 장 소 : 인도 뉴델리
- 참 석
 - SARRC 회원국 대표 : 네팔, 몰디브, 방글라데시, 부탄, 스리랑카, 아프가니스탄, 인도, 파키스탄
 - SAARC 옵저버 : 한국, 일본, 중국, EU, 미국
- 주요 안건 : Terrorism, Trade, Transit

1 주요 내용

- 주요 결의
 - 인도는 SAARC 회원국들의 교사, 학생, 교수, 언론인 및 환자들에 대해서 비자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, 남아시아 지역 개도국들에 대하여 관세 면제 조치를 취함
 - 방글라데시는 합판, 생사, 3천cc 이하 자동차, 삼푸, 유가공품 등 4천 여개 품목에 대하여 SAARC 회원국들에게는 관세의 5%를 감하기로 함
 - 뉴델리에 남아시아대학을 설립하자는 중의가 모아졌으나, 이에 대해 방글라데시는 국별 캠퍼스 유치 필요성을 강조

- 자연재해 등 발생시 식량위기에 대비한 SAARC 차원의 식량은행(food bank)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, 각 회원국이 별도로 운영하는 식량은행의 재고 소진시 동 지역대표 식량은행으로부터 보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
- 국경간 무역촉진을 위한 SAARC 중재위원회의 설립
- 평화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업의 증대
- 2008년을 “SAARC 굿거버넌스의 해”로 지정
- SAARC 개발기금(Development Fund)의 조성, 인도는 지역내 빈곤퇴치를 위하여 동 SDF 기금에 100백만불 지원 공약
- 모든 SAARC 회원국들은 테러리즘 근절에 적극 협력키로 하고, 국제적 차원에서의 포괄적 협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함
- 옵저버 참석국들은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남아 지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, 주요 경제강국인 옵저버 참석국들에게 SAARC 회원국들은 새로운 투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동 지역내에서 SAARC와 같은 지역협력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. 특히,

옵저버 참석국들은 SAARC 회원국들에게 지역내 협력강화를 위한 무역증대, 에너지부족 해소, 국가간 연계강화, 투자증대 및 평화와 안전 촉진을 강조했다.

IV. 원조공여국 월간회의 개요

- 일 자 : 2007. 4. 19
- 참 석 : 네덜란드대사관, 스웨덴대사관, 프랑
스대사관, ADB, AusAID, CIDA, EU/EC,
ECHO, Hellenic Aid, IOM, JICA, JBIC,
KfW, KOICA, SDC, UNHCR, USAID 등 31
개 기관

2 주요내용

- 북동부 교전지역 인도적구호 현황
 - 새롭게 난민대열에 합류한 신규편입 난민수
가 305,000여명에 이르며, 상황이 개선되지
않을 경우, 400,0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
상됨
 - 북동부 교전지역 난민구호에 총 66백만불이
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, 이 중 35백
만 불 상당 자금이 확보되어 UNDP,
UNICEF, WFP, ICRC 등을 통해 식량공급,
난민촌 설치, 식수공급 등 구호 사업 추진중

■ 스리랑카 정부의 10개년 개발계획(안) 확정 예정

- 2007. 1월말 개최된 “개발포럼”에서 공개된
스리랑카 정부의 10개년 개발 계획(10 Year
Horizon Development Framework) 관련,
그간 기존 공개된 초안을 바탕으로 스리랑카
내의 경제계, 노동계, 시민사회계 및 원조공
여국 대표 등을 통한 검토작업이 진행되어 왔
으며, 6월 말경 최종안 확정 예정

- 6월 말 확정될 최종안에는 우선지원분야의
선정과 집중 차원에서 economics, financial
realities, macro-economic forecast and
scenarios, the lagging region, Gama-
Neguma(rural development), support to
SME 등 분야에 대한 집중 검토가 이뤄지고
있으며, 특히 공여국 대표격인 Steering
Committee는 내전중인 정치적 상황, 인권
및 인도적 관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
개입하고 있음

■ 주재국 인도적, 개발원조 시행 원칙

- 주재국 원조공여국 모임은 원조공여국(기관)
의 사업수행에서의 책임 및 중립성 강화를
목적으로 “인도적, 개발원조 시행원칙
(Guiding Principles for Humanitarian
and Development Assistance)”에 대한 공

동서명 작업을 추진중에 있음

- 주재국 정부 - LTTE간 평화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일부 지역 및 계층에 편중되고 있다는 공여국 내부의 자각 등에 따라 EU 등 공동의장국을 중심으로 대주재국 원조시행상의 질적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음, 이에 따라, 대주재국 원조공여국간 원조 사업 수행에 있어 지역적, 민족적 편중(콜롬보 중심의 서남부 지역 및 싱할라족 위주의 지원)을 해소하고, 개발소의 지역에 대한 공평한 지원, 공여국간 원조조화 및 인권배려 등 사업수행 원칙에 있어 공동서명 필요성이 대두됨

- 인도적, 개발원조의 목적 재확인, 원조의 비차별성/투명성/책임성/지속 가능성 및 인권 존중 등 강조, 원조공여국(기관)간 원조조화, 주재국측에 원조기구 직원(Aid Worker)들의 사업현장 접근성 및 안전성 제고 요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 원칙 공동서명에는 네덜란드, 독일, 미국, 스위스, 프랑스, 독일,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서방 원조공여국과 일본이 참여 예정, 5월 중순으로 예정된 동 서명에는 우리나라도 참여 예정

[자료: 주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대사관]